



이재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13일 오후 파주 임진각을 방문해 내일의 기적소리를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차질없게”

이재울 행정1부지사, 현장 점검

이재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3일 파주시 임진각을 방문해 DMZ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진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부대 시설 이전 현황 등을 확인하고,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

되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과거 남북을 이었던 다리를 활용해 조성된 관람시설인 ‘내일의 기적소리’와 DMZ생태관광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도는 향후 환경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네덜란드 국적기업 ESP의 아시아 사무소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 유치해 본격적인 DMZ 생태계 연구에 나

선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군 경계력을 보강하는 효과도 있는 사업으로, 도는 부대 이전 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병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ij@kyeongin.com

파주 평화생태공원 현장 방문 이재율 부지사 관광객 편익 챙겨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임진각 관광
객 편익시설 확충과 경기관광공사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도
입을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13일 파주시 평화생태공
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임진각 습지
지원센터 및 캠핑장, 내일의 기적소리 사
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지시했
다. 또한, 이 부지사는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과
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파주시
마정리 중대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
부했다. 이를 위해 이 부지사는 해당 부
대를 방문, 군의 사기 및 복지 증진을 위
한 방안을 협의했다.

정일형기자
5.6 X 10.2 cm



이재율 도행정1부지사 임진각 방문 13일 오후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관광 인프라
를 확대하기 위해 파주 임진각을 방문해 내일의 기적소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11.5 X 7.3 cm

“봄바람 타고 DMZ 평화누리길 함께 달려요”



내달 22일 '임진적벽길' 걷기행사-29일 자전거투어 연천, 온가족 즐기는 프로그램 마련... 참가자 접수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현장을 걸으
면서 계절도 느껴보고 통일도 기약해보
세요.” DMZ 일원을 걸어보는 평화 누리
길 걷기행사 with 자전거투어가 다음
달 연천에서 펼쳐진다.

평화 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연천, 김포, 고양, 파주 등을 잇
는 총 연장 191km에 12개 구간으로 구성
된 경기도 최북단 명품 트레킹 코스로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염원을 간직한 곳
이다.

특히, 연천 구간은 임진강과 주상절리

등 DMZ 접경지역 특유의 때 묻지 않은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갈수록 늘고 있다.

연천 평화 누리길 11 코스 '임진적벽
길'을 걷는 행사가 다음 달 22일 개최된
다. 임진물새롬랜드를 출발해 주상절리
를 지나 동이리와 금굴산을 거쳐 돌아
오는 10.5km의 순환형 코스로 운영되며,
독방길을 따라 핀 벚꽃과 화산분출로 형
성된 거대한 주상절리, 길에 핀 다양한
봄꽃들을 즐길 수 있다.

이어 연천 자전거투어는 다음 달 29일

임진적벽길에서 열린다. 임진물새롬랜드
를 출발, 임진강변을 따라 군남홍수조절
지를 반환점으로 되돌아오는 19km 코스
로,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고적한 임진
강변 독길을 따라 달릴 수 있다.

‘이 좋은 봄날, 평화 누리길에서 만
나자’를 주제로 열릴 이번 행사는 완연
한 봄을 느끼며 남녀노소가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
련된다. 코스 중간 중간 미니게임이 배
치되며 참가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통
해 카드를 수집하는 모두 찾아라! 평화
누리길 카드게임과 평화누리길 페이스
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등이 진
행된다.

평화 누리 종주 투어 홍보대사인 배

우 박철민씨가 동행해 출발지 포토월
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
는 박철민과의 포토타임도 준비됐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은 사전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활동을 실천하면 자원
봉사활동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공식홈페이지(www.
walkyourdmz.com)를 통해 접수 받
는다. 인원은 걷기행사 선착순 1천300
명, 자전거투어 선착순 300명 등이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셔틀버스 이용료
와 자전거대여료는 별도이다. 참가자
에게는 기념품과 완보증 등이 제공된
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031-
956-8310)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정대정기자

28.4 X 10.7 cm



13일 오후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파주 임진각을 방문해 내일의 기적소리를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道, DMZ 안보·생태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 만들기 주력

이재율 행정1부지사, 임진각 방문 마정리 군부대 이전 추진 등 지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3일 임진각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기관광공사 자립기반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 사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마정리 중대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지시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파주시 소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현장인 임진각내 '내일의 기적소리', 'DMZ생태관광지원센터'와 군부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내일의 기적소리는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한 것으로, 일 평균 방문객은 800여 명에 달한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는 도가 DMZ를 역사·안보·생태·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력 운영해왔다.

센터는 DMZ군충전사와 김녕만 생태사진전 등을 개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MZ일원의 생태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ESP(Eco Service Parthership·네덜란드) 아시아 사무소를 유치,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시설 및 군 경계력 보강사업이 상호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부지사는 "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부대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병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군복무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DMZ 평화누리길 걸으며 봄날 만끽

연천·김포·고양·파주 잇는 트레킹 내달 22일 열려
일주일 뒤 임진적벽길서 19km 코스 자전거투어 개최

경기관공사는 역사와 생태계의 보고 DMZ 일원을 걸어 보는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및 with 자전거투어를 다음 달 22일과 29일 각각 개최키로 하고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연천·김포·고양·파주를 잇는 총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도내 최북단 명품 트레킹

코스로써 분단의 역사와 통일여원을 간직한 곳이다.

특히 연천군 구간은 임진강과 주상절리 등 DMZ 접경지역 특유의 때 묻지 않은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이로써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 '임진적벽길'을 걷는 행사는 내달 22일 개최된다.

임진물새롬랜드를 출발해 주

상절리를 지나 미산면 동이리와 금굴산을 거쳐 돌아오는 10.5km의 순환형 코스로 운영되며, 독방길 따라 핀 벚꽃과 화산 분출로 형성된 거대한 괴암절벽 길에 핀 다양한 봄꽃들을 즐길 수 있다.

연천 자전거투어는 같은 달 29일 임진적벽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이 역시 임진물새롬랜드에서 출발, 임진강변을 따라 군남홍수조절지를 반환점으로 되돌아오는 19km 코스이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고적한 임진강변 독길을 따라 달릴 수 있다.

'이 좋은 봄날, 평화누리길에서

만나자'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행사는 완연한 봄을 느끼며 남녀노소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코스 중간 중간 미니게임이 배치되며, 참가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통해 카드를 수집하는 '모두 찾아라! 평화누리길 카드게임'과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등이 진행된다.

또 평화누리 종주투어 홍보대사인 배우 박철민 씨가 동행해 출발지 포토월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박철민과의 포토타임도 준비돼 있다.



연천군 자전거투어 참가자들이 평화누리 길을 달리고 있다.

이밖에도 사전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면 자원봉사

활동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ohoibo.co.kr

29.4 X 10.0 cm